

순천시, 시민이 체감하는 토지행정 펼친다

‘찾아가는 지적사랑방’ 확대 바른 땅 만들기 지적 재조사 항공영상·로드뷰·DB 구축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 올해 56개 시책 중점 추진

순천시가 소통행정과 지적 선진화 기반 구축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6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찾아가는 지적사랑방’을 확대 운영하고 바른땅 만들기 지적 재조사 사업과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영구 지적 기록물 DB 구축, 도로명주소 홍보강화 등 56개 시책을 중점 추진한다.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산정, 신뢰받는 토지행정 확립 ‘앞장’=순천시는 지역 27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첨단 기술을 이용한 토지특성 조사를 강화한다.

특히 토지 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합리적으로 결정·공시하기 위해 항공영상과 로드뷰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해 시민이 신뢰하는 토지행정을 구현한다는 목표다.

최근 아파트 분양 등 주택시장이 활황을 띠며 발생하는 이중계약 등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도 강화한다. 부동산 실거래



순천시는 읍·면지역 오지마을을 찾아 지적조사에 대해 설명하는 ‘찾아가는 지적 사랑방’을 운영하고 있다. 지적조사 설명회 모습. <순천시 제공>

가 신고자료에 대한 정밀 검증 실시와 거짓신고 등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 투기와 무분별한 토지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에 대한 분석과 검토로 불합이 적발될 때 그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교통이 불편한 읍·면지역 오지마을을 현장 직접 찾아가 민원을 해결해 주는 ‘찾아가는 지적 사랑방’ 운영도 강화한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찾아가는 지적 사랑방은 지적측량과 지목변경 등 지적민원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부서 건축 인허가 민원까지 처리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 지속, 도로명주소 정착 공간정보 인프라 확충=시는 2013년~2030년까지 18년간 약 5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바른땅 만들기 지적재조사 사업’에도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합합지를 조사·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분쟁을 해소해 주는 바른땅 만들기 지적재조사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한다.

지난해까지 해동면 월전지구 등 3개 지구 1613필지를 완료했으며 올해는 월전면 월등지구 등 4개 지구 4621필지에 대한 재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토지대장과 지적측량결과도, 토지 이동결의서 등 영구 지적기록물 DB구축과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등을 추진해 ‘스마트시티’에 부응하는 지적 선진화 기반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시는 매년 최신 항공사진 구축과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DB 관리로 도시 발전과정의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토지개발과 건축물, 상·하수도, 통신 시설물 등을 분석·검색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정보 시스템을 운영해 행정업무 전반에 활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로명주소 생활화 및 조기정착을 위해 시민들로 구성된 민간 서포터스와 함께 민·관 합동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시민 대상 홍보 퀴즈 이벤트 여는 등 도로명 주소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올해는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도록 읍·면지역 자연마을을 대상으로 지번과 도로명, 마을회관 등이 표기된 마을단위 안내도도 제작·배부할 예정이다.

이강선 순천시 토지정보과장은 “순천시가 전남도에서 실시한 2017년토지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5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며 “올해도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이 체감하는 선진 토지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형 헬스투어로 한방체험관을 찾은 관광객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쉼이 있는 ‘순천 헬스투어’ 인기

참가자 95% 만족...올해 2개 코스 추가 운영

“쉼과 바람이 있는 힐링의 도시 순천으로 오세요.”

순천시가 관광객 1000만 시대를 맞아 관광상품으로 개발한 ‘순천형 헬스투어’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본격 운영된다.

지난해 4월부터 운영된 순천형 헬스투어는 서울과 부산, 대구, 경기 등 각 지역에서 가족여행과 직장연수 및 워크숍 등으로 개인과 기관단체 1500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95%가 헬스투어 프로그램 운영에 만족한다고 답변하는 등 인기가 높았다.

시는 지난해 인기 있었던 1박 2일형 힐링코스과 치유코스, 당일형 나들이코스 외에 올해는 도심투어 코스와 농가 체험코스 등 2개 코스를 추가해 차별화된 순천형 헬스투어를 운영할 계획이다.

순천형 헬스투어는 올해 역시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 와온해

변, 낙안읍성, 선암사, 드라마촬영장, 문화거리 등에서 진행된다.

참여시간은 개별과 가족여행, 기업체 및 단체직원 등 참가자의 편의를 위해 주말과 주중 요일에 관계없이 일정과 요구사항에 맞추어 맞춤형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맞춤형 운영외에도 헬스투어 이후 참가자들이 지속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정보와 건강 체크 요령 등을 알려준 것이 호응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헬스투어 참가비는 당일형의 경우 식비와 체험비, 교통비, 입장료 등을 포함해 1인당 15만원이다.

참가신청과 예약은 ‘두근두근 순천여행 홈페이지’(<http://main.suncheon.go.kr/tour/>)와 관광진흥과로 예약하거나 전화(061-749-4834, 5792)로 신청하면 된다.

/순천=박선천기자 psc@

순천시, 오천지구 현장 방문 저류지·펌프장 등 현안 논의

순천시는 지난 2일 재해예방 차원에서 조성 중인 동천변 저류지와 오천 택지 개발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현장을 방문해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 관계자들은 오천택지 앞에 조성 중인 저류지 사업장과 풍덕 배수펌프장 활용방안에 대한 토론을 했다.

현장에 참석한 조충훈 시장은 “오천지구 앞에 놓인 저류지와 배수 펌프장을 큰 그림으로 봐야 하며 오천 주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국가정원의 서브 정원으로 시민들과 함께 활용하는 두 가지 의미에서 접근하자”고 제안했다.

조 시장은 또 “저류지 사업은 하천재해

예방 차원에서 최대한 취지에 맞게 준공하고 풍덕 배수펌프장은 물론 국가정원, 잡월드 등 인근 시설들과 연계할 수 있는 장기적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관계 부서 간 협업을 요구했다.

이와관련 시는 학교부지와 주차문제 등 오천택지 지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사업은 현장에서 상거주민과 거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순천시는 진아리채 아파트 등 오천 주민들이 냄새와 모기 서식 등의 불편을 호소했던 배수로에 대해 복개사업을 추진해 민원을 해결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kwangju.co.kr



지난 2일 조충훈 시장과 시 관계자들이 오천지구 현장에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순천시 제공>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정책 내용·참여 전문가 실명 공개

“무엇이든 궁금하면 신청해서 물어보세요.”

순천시는 시민이 알고 싶어하는 정책의 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하는 시민신청 실명

제를 시행한다.

순천시는 투명한 행정을 위해 시민의 요구가 있으면 해당 정책의 주요 내용과 참여 공무원·전문가의 실명·추진 상황을 공

개할 방침이다.

시민이 공개를 요구한 정책은 시정조정 위원회가 공개 여부를 결정한 뒤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까지 한 달간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193개의 정책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지만, 시민이 공개를 원하는 정책이 누락될 수 있어 시민정책실 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시민의 이익이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정책도 공개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논 타작물 재배 실적 따라 공공비축미 확대 배정

순천시는 6일 논 타작물 재배 실적에 따라 공공비축미를 확대 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정부에서 논 타작물 재배에 참여한 실적을 공공비축미 배정에 30%를 반영함에 따라 ‘논에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신청이 성과를 내고 있다

며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논에 타작물을 재배한 실적이 많을수록 2018년 공공비축미 배정량이 확대된다.

또 사업 신청·접수를 4월 20일까지 연장해 많은 농업인이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

상농지도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에서 2017년 실제 벼 재배가 확인되는 농지로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 무와 배추, 고추, 대파, 인삼 5개 재배 작물이 현재 무, 배추, 고추, 대파만 재배 작물로 변경 지정됨에 따라 인삼은 사업 대상 작물에 포함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올해 쌀 수급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쌀 생산능력과 축산농가, 농업인단체 등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순천=박선천기자 psc@

호남지역 대표주자 YHB집진기 산업현장/요식업분야 환경을 확보드립니다

Y31Y AS24 YHB 31년의 역사와 기술이 요식업소, 산업현장 미세먼지/오일미스트/연기를 완벽히 제거합니다

미스트 크리너

하나의 바디, 네가지 기능
미스트크리너를 새롭게 개발하다

머시닝센터, CNC 선반, 밀링가공
방전기공 외 미스트 발생 공작 기계

요식업소용 전기집진기

직화구이 연기, 미스트, 미세먼지 민원해결사

직화구이점 미세먼지 배출주의보 발령
대기오염 규제 대응 해결책

6-사이클론콜렉터

더스트크리너의 새로운 창의, 새로운 발명
사이클론을 한 몸에 품다

그라인더작업, 금속절단가공, 드릴작업, 아크릴가공
절삭작업, 파쇄, 석재가공 등 분진 발생하는 작업

(주) YHB ECO / 주식회사 YHB

www.yhbeco.com / www.yhb.co.kr
E-mail : eco6400@hanmail.net

본사 및 영업본부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 12차 501호 Tel. 02-2029-6400 Fax. 02-2029-6404
광주 공장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5번로 45(장덕동) Tel. 062-953-2995
익산 공장 : 전북 익산시 석암로1길 4(용제동) Tel. 063-835-4771